

집필: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존엄성 1편>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인권 알리미’, 이름은 알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할거예요.
인권 공부의 첫번째 주제는 ‘존엄성’입니다.

[타이틀 이미지]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지 생각해볼까요?

모두가 계산기를 들고 다닙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계산기를 두드려 손해와 이익을 따져보지요.

계산기를 가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대 이익을 위해서라면, 때로 소수자의 희생은 어쩔 수 없어”.

모두가 마음속에 소속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소속증은 본인이 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만들지요.

소속증을 가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집단의 관습을 잘 따라야해. 관습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상해.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자.”

모두가 법전을 들고 다닙니다.

법전을 가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일은 합법과 불법, 두 가지 잣대로 깔끔하게 나눌 수 있어.”

“도대체 법에도 없는 권리를 무슨 근거로 요구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와
소속증이 없는 사람과

법적인 권리를 따질 수 없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존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제 안에 있습니다.
저의 소속과 지위는 분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당신들과 다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법의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나를 들여보내주겠어요?”

이런 존재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인간 존엄성’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떤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춰야 존엄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존엄하게 대할 수 있을까?’로 말입니다.

[뉴스화면]

201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를 점검하는 일을 하던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죽은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용균입니다.

[뉴스화면]

김용균의 동료 노동자와 연대자들은 “우리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치며 노동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폭력에 맞섰습니다.

김용균 같은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한 사회적 조건은 무엇일까요?
계산기로 이윤만 계산하고,
비정규다 파견이다 이런식으로 소속증을 따지고,
법전에 이들을 위한 법은 새겨넣지 않은 것 아닐까요?

김용균이 사망한 날은 바로 ‘세계인권선언’이 태어난 날입니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약속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날, 바로 그날 우리는 존엄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세계인권선언이 약속한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기억해봅시다.

존엄성을 정당화하는 의견은 시대와 사회마다 달랐습니다.
신의 이미지대로 창조됐으니까, 신분이 높으니까, 이성적 동물이니까.
이중에서 특히, '이성'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대사: 근대 철학자]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다! 이성 때문에 인간은 다른 생물과 구분된다! 위대한 이성을 가진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행위의 주체이다.

하지만 이성은 과연 '모든' 인간의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소위 '이성의 주체'들은 부유하고 건강한 백인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발언권이 적은 사회적 약자들은 이성이 없거나 적다고 여겨졌습니다.

[대사: 여성, 흑인 등] 우리는 이성이 없는 존재, 즉 야만인으로 여겨졌어요. 이성이 없으니 인간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단가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비인간(inhuman), 덜인간(less-human)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이성이 없거나 덜하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죠.

이성은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하고, 인간답게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성의 폭력이 정점에 달한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대사: 나치] 유대인은 인간이 아니다! 쥐 잡듯이 잡아라! 성소수자도 잡아라! 정신장애인도 잡아라! 반정부적인 사람들도 함께 잡아라! 이참에 쓸모없는 사람들을 쓸어버리자!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고 믿었던 이성의 종착지는 대규모 학살 수용소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2차 대전의 참상에 대한 반성과 성찰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대 이성의 배타성을 넘어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필요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을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서로의 역사적 배경, 정치나 경제 체제, 문화나 종교. 모든 것이 달라
도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사: 회의 참여자1] 배경이 아무리 다르다 해도 우리는 모두 사람이잖소. 나도 사
람, 당신도 사람,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자는 약속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요?

[대사: 참여자2] 맞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데 그걸 부정하고
무시한 대가가 방금 겪은 전쟁의 참상이었잖소.

[대사: 참여자3] 맞아요. 인간을 피라미드 속에 집어넣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
다. 피라미드 위에 속한 인간, 밑에 속한 인간, 더 우월한 성별, 더 열등한 성별, 더
잘난 민족, 그렇지 않은 민족..., 이런 식으로 위계를 나누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대사: 참여자4] 신분이나 이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한 존재
입니다. 존엄성이라는 ‘공통된 지위’를 갖는 겁니다. 누구나 존엄한 자로서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후 세계를 이끌어갈 민주주
의의 원칙입니다.

[대사: 참여자5] 옳소. 인간 존재 자체가 침범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품고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합시다. 바로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인권이 필요하다고 약속합시다. 이
건 같이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실천의 약속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건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겠다는 실천의 약속!

인간 존엄성은 초월적인 존재가 부여한 것도, 객관적인 법칙도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가 서로에게 부여하고 존중하기로 약속했기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공통된 지위
입니다.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인정과 실천 속에서만 인
간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존엄성 2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권 알리미', 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한 것, 기억하시나요? 인류가 '세계인권선언'에서 근대적 이성을 넘어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약속한 과정에 대해 배웠죠. 오늘은 인간 존엄성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타이틀 영상]

(구연동화처럼 다른 톤으로)

옛날 옛날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너무 기뻐던 부모는 관례대로 아기의 수호성이 될 요정들을 초대했습니다. 부모는 요정들에게 아기를 위한 선물을 부탁했어요.

[대사: 요정1] 너는 어디서나 가장 쓸모 있는 존재가 될 거야
첫번째 요정은 아기가 쓸모 있기 위한 재능 세트를 주었어요.

[대사: 요정2] 너는 가장 덕스러운 존재가 될 거야
두번째 요정은 아기의 고매한 덕성에 어울리는 품위세트를 선물했습니다.

[대사: 요정3] 너는 가장 예쁜 여자가 될 거야. 가장 여자다운 일을 하게 될 거야
세 번째 요정은 아기에게 여성스러움을 선물했지요.

어머니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대사: 엄마] 요정님들! 잠깐만요. 그게 정말 이 아이를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아이가 요정님들이 주신 선물과 다른 가치를 삶의 목적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요...

[대사: 아빠] 쓸모있는 재능? 덕스러운 행동? 남자답다거나 여자답다는 평가와 단속? 과연 이 아이가 그걸 원할까요?

[대사: 요정1] 물어봐줘서 다행이에요.

[대사: 요정2] 그러게요. 저희가 아무리 우리들의 좋은 의도로 준 선물이라도, 아이는 저희의 의도를 담은 그릇이 아닌데요.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대사: 요정3] 선물을 바꾸겠어요. 아기야, 네가 삶에서 무엇이 좋고 옳은지를 스스로 따져볼 수 있는 권리를 주마.

[알리 내레이션 톤]

이야기에서 요정들이 마지막으로 아기에게 선물한 것이 바로 존엄성이예요. 재능, 품위, 성 역할 등을 준다면, 아기의 인생은 그런 기준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기가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기의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 요정들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요.

[자막] 존엄성이 있기에 존재 그 자체로 목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은 인간이 그 자체로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서는 '목적'의 자리를 '수단'이 되어야 할 것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용의 최대화, 탁월한 덕, '무엇다움'에 부합하는 모습과 능력. 이런 것들이 '목적'의 자리를 차지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위에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위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양심과 자율에 따라 판단하여 '아니오'라고 할 수 있으려면,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노동자의 예를 들어 생각해볼까요? 최대 수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노동자는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에 투입해도 되고, 과로사 할만큼 혹사 시켜도 되는 ‘인력’이 됩니다.

[뉴스클립](택배노동자 사망)

위험한 작업지시에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상고객에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노동자는 매상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인권입니다.

‘인간 존엄성’에 토대한다는 점에서 ‘인권’은 여타의 특권들과 구분됩니다. 사실은 특수한 이익을 위한 권리이면서 보편적인 인권인 척하는 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척하는 권리들과 인권을 구별하는 기준이 존엄성 존중입니다.

이번에는 존엄성의 특성에 대해 좀더 알아보시다.

2020년의 인기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대사] 인간은 너무 약해. 그래서 아픈 거야

[대사] 아니, 약하니까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같이 기대 사는 거야.

[자막] 인간이 약한 것은 약점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철학적 선언이기 이전에 인간의 존재 조건 그 자체입니다.

인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는, 인생의 단 한 순간도 결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취약하니까 인간이고 의존하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이 가진 취약함은 인권을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생존할 수 있고 혼자서 다 헤쳐 나갈 수 있다면, 존엄성이나 권리 같은 건 필요 없을지 모르지요.

하지만 인간은 서로에게 기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존엄성이나 권리는 타자의 존중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왜 '의존성'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늘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의존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의존에 대한 인식과 태도입니다.

의존은 기생하는 것이고 몰염치한 것이라는 인식과 무시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대사] 나는 내 능력과 노력으로 자수성가했어!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않아!

이렇게 독립적이라 자부하는 삶도 꼼꼼히 따져보면, 사실은 술한 타자의 노동과 환경에 기대어 있습니다.

인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함께 생존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와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관계와 제도가 오히려 인간의 취약함을 욱보이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뉴스클립](세 모녀 사건)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나요?”

모멸감 때문에 복지 제도를 거부하는 것이라 합니다.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이용 못 했다고도 합니다.

제도를 알고 찾아갔어도 문턱이 높아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복지제도를 찾은 시민의 상황을 재연한 것입니다.

(대사 재연)

- 소득이 얼마예요?
- 음... 얼마쯤요.
- 지원을 받기에는 좀 많네요.
- 그럼 어떡해야 하죠?

- 이보다 적게 벌든지 아예 소득이 없으면 되겠네요.
- 그럼, 일하지 말라고요? 지금도 최저생계비가 안 되지만, 일을 그만두고 지원액만으로는 살림을 꾸릴 수 없는데요.
- 그럼 지원 받을 자격이 안돼요. 지금보다 더 가난하거나 더 절박해야 해요.

이렇게,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장치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인권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취약성을 오히려 강화하고 육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을 지켜내기 위해 인간 존엄성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 존엄성은 사회적 관계와 제도가 취약성을 만들어내고 강화하지 않도록 지키는 방패막입니다.

인간 존엄성에는 ‘의존의 존엄성’이 포함됩니다.

(내레이션 읽어야 함)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고 생각해봐. 우리 몸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지. 우리 몸의 건강은 늘 남들이 내리는 선택에 의존하고 있어. ...요컨대 독립성이란 환상이 존재한단 거야...우리는, 우리 몸은 독립적이면서도 의존적이다.” (올라 비스, <면역에 관하여>)

[뉴스클립] (돌봄노동자)

의존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 의존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개인이나 의존하는 개인을 돌보는 이들을 시민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존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함께 돌봄’은 ‘의존’을 존엄하게 만드는 실천입니다

땅속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이 펌프가 작동하려면 물 한 바가지를 먼저 부어주어야 합니다. 이 물 한바가지를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땅 속에서 끌어올려지는 물이 권리들이라고 치면, 존엄성은 모든 인권의 마중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더 나은 인간다움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법과 제도로 확정되어 있는 권리 바깥에 있기도 합니다. 안팎의 경계를 허무는 힘, 인권을 나아가게 하는 마중물 같은 힘은 우리 모두의 존엄성에 있습니다.

<자유 1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권 알리미’, 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한 것, 기억하시나요?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권의 또다른 토대, 자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타이틀 시퀀스]

먼저, 존엄, 자유, 평등, 연대가 인권의 토대임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살펴봅시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 과 양심을 타고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자막/내레이션] 모든 사람은 자유롭다니, 지금 당신은 자유로운가요?

[대사: 직장인1] 무슨소리에요.. 아유.. 하기싫어...

[대사: 직장인2] 아니요.. 죽겠어요

맞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흔히 억압과 부자유를 경험합니다.

또한 인간은 더위와 추위, 선천적/후천적인 질병, 사고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비교와 경쟁, 모멸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선언은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부자유와 씨름하며 부자유와 싸울 때 이 씨앗이 발화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자유로운 존재로 대우하는 우리의 상호 행위 속에서 자유가 등장합니다.

자유는 인간 존엄성과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유약하고 불리한 처지의 사람이라도, 다수와 아무리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됨을 침범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에 비유해볼까요. 우리는 누구나 각자 삶의 저자이고,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삶으로 써나갑니다. 이 책들은 장르도 형식도 무궁무진하게 다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는, 자신만의 소중한 책을 쓰는 것입니다.

[자막/내레이션] 내 삶의 자유로운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타자와 사회적 자원입니다.

자유를 개인에게만 떠맡기지 않는 것이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의 책임입니다.

자유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개념은 오남용되곤 합니다. 극심한 부자유를 유발하는 상황을 '자유'의 이름으로 위장하는 일도 있죠. 예를 들어, 노동자 A씨의 상황을 함께 볼까요?

[대사: 노동자] 아.. 이걸 말도 안 돼.. 밥 한 끼도 못먹고 10시간째 일하고 있어.

[대사: 사장] 싫으면 관둬, 누가 당신더러 억지로 시켰어. 당신 자유로 일한다고 한 거잖아.

이렇게 구조적인 폭력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유'라는 꼬리표를 붙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유가 남용되는 다른 예시를 살펴볼까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여기면 타인의 '기본적인 자유'가 제약되는 일을 적극 옹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사: 불특정 어른의 목소리1] 저 집은 따로 교육 받아야지.

[대사: 불특정 어른의 목소리2] 다 좋은데, 우리 애랑은 수업 안했으면 좋겠어.

[대사: 불특정 어른의 목소리3] 학교에 민원을 넣어서 따로 수업하라고 압박해야겠어.

[자막/내레이션] 모든 아동은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대사: 불특정 어른의 목소리1] 누구네 아이가 우리 애와 같은 유치원에 다닌데요.

[대사: 불특정 어른의 목소리2] '이상한 사람의 자녀와 우리 애가 같이 지내는 게 꺼

림직하네요.’

[대사: 불특정 어른의 목소리3] ‘유치원에 그 아이는 안 오도록 조치를 요구해야겠어요.’

[자막/내레이션] 모든 아동은 가족 형태나 가족 구성원의 지위와 상관없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자기의 자유를 이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에게는 당연한 자유라 여기면서 타자가 같은 자유를 요구하면 주제넘거나 가당치 않은 요구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대사: 직장상사] 가족이 아파서 나 며칠 자리 비울 거야. 곁에서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대사: 직장 부하직원] 저, 친밀한 사람이 너무 아파서 제가 곁에서 돌봐야 할 것 같아요. 연차 좀 쓰겠습니다.

[대사: 직장상사] 사적인 일 때문에 회사 일에 영향을 받고, 연차까지 쓰는 것은 무책임하네요.

이렇듯, 자유를 둘러싼 태도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흔히 갑을관계로 나타나는 권력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서 기울어진 권력관계를 동등하게 바로 잡는 것이 자유의 싸움입니다.

인권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위협하는 자유에 대한 오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대표적인 것이 ‘나’를 둘러싼 오해입니다.

[대사: 사장]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지.

[대사: 직장 상사] 내 자유는 절대적이야.

우리는 모두 각자 삶의 저자이긴 하지만, 인생의 책은 혼자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흔들리면서 ‘나’를 정립해갑니다.

그 과정에서 타자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나 또한 다른 이에게 그런 역할을 하지요.

자급자족으로 스스로를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내 맘대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자와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를 대신하거나 타인의 의지에 반한 결정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자유가 '절대적'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막/내레이션] 우리는 상호 의존 속에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 받으며 자기에 대해 결정합니다.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혼자서만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결정했으면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의 간섭과 개입만 없으면 자유로운 것'이라는 태도는 아주 소극적인 자유관으로 연결됩니다.

[자막/내레이션] 무엇을 외부로 보느냐, 무엇을 간섭과 개입으로 보느냐는 깊게 따져 봐야 할 문제겠지요.

'외부'의 간섭과 개입이라 할 때, '외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막/내레이션] 첫번째, 국가권력을 생각해볼까요?

시민을 상대로 감시, 고문, 투옥, 학살 등을 저지른 군사독재정권의 경험은 아직도 그 피해가 깊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고대하는 사건들이 여전하며, 제대로 애도되지 못한 죽음과 생존자의 후유증도 깊습니다.

민주화 이후 정권이라고 해서 국가권력을 오남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가진 법, 군대, 경찰 등은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동시에 언제든지 가장 큰 위협으로 돌변할 수 있죠.

[자막/내레이션] 둘째, 시장 권력을 생각해볼까요?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에서처럼, 사람들은 시장에서 계약, 선택, 경제활동의 자유를 누린다고 이상적으로 가정합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자본이라는 권력이 있습니다.

큰 자본일수록 큰 권력을 누립니다. 심한 경우엔 생태를 파괴하고 사람을 해치며 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기도 하죠.

시장 권력은 현란한 소비의 유혹을 자유로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시장의 권력이 커지다보니, 삶의 다른 영역까지 시장의 논리가 침투합니다. 교육, 건강,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도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게 됩니다. 이윤과 경쟁, 승패의 논리가 시장 밖까지 손을 뻗칠수록 우리의 삶은 궁핍해집니다.

[자막/내레이션] 셋째, ‘사회’, ‘공동체’, ‘다수자’라는 이름의 권력이 있습니다.

‘다수, 여론, 관행, 표준, 정상’등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평준화하고 획일화하려는 압력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고나 관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비정상으로 취급받고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수가 저지르는 혐오와 증오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막/ 내레이션] 마지막으로 타자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는 타자이겠지요.

자신의 자유는 소중하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타자의 자유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거나 더 나아가 훼방하고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사] 동성애 결사 반대! 이주노동자는 떠나라! 난민보다 국민이 먼저다! 정신병원 이 전하라!

자유를 향한 의지와 옹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집, 독선, 고집이 대신 차지합니다. 정보와 소통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의견만 챙겨 듣고 사실 여부를 검증하지 않죠.

자기 관점에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타자의 인권 문제가 공적으로 다뤄지거나 기회나 자원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도 합니다.

타자의 자유를 무시하는 관계 속에서는 자기의 자유 또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타자의 자유를 존중할 때 나의 자유도 당연한 것이 됩니다.

<자유 2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권 알리미', 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살펴볼까요? 자유는 인권의 토대이며, 사람은 혼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해 알아보시다.

[타이틀 시퀀스]

다음 상황을 볼까요?

[인간극장 성우st] 프리랜서 작가 양양씨,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다.

[양양: 대사] 프리랜서라고 하면, 이런 말을 자주 듣죠.

[익명의 말풍선들: 대사]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거 아냐~? 좋겠다~

[양양: 대사] 하지만 그런 자유는 저에게 없어요. 생계를 위해 일감을 거절할 수 없고, 밤을 새고 무리해서라도 일을 해내야 합니다. 저는 돈도 없지만 시간도 없고, 완전히 지쳤어요.

[인간극장 성우st] 녹초가 되어 밥 먹을 기운조차 없는 양양씨. 결국 오늘도 배달 어플을 켜다.

[양양: 대사] 주문 최소 비용은 왜 이렇게 비싼거야... 다 먹지도 못하겠네.

[인간극장 성우st] 결국 남겨서 버리게 될 줄 알면서도 두어 개를 주문하는 양양씨.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배달 라이더가 총알처럼 빠르게 도착한다.

[배달 라이더: 대사] 맛있게 드세요~

[인간극장 성우st] 음식을 가져다준 배달 라이더 민규씨의 상황을 들여다보자. 민규씨는 주문 콜이 언제 뜰 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스마트폰에 늘 눈을 붙이고 있다가 짹 짹 주문을 받는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천만다행인 속도로 음식을 배달하는 민규씨.

[배달 라이더: 대사] 비가 오거나 궂은 날에 일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벌금을 매기기도 해요. 배달료는 들쭉날쭉 하죠.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면 바로 어플 접속이 차단되죠.

[인간극장 성우st] 민규씨는 회사의 명령과 지휘대로 일하는 노동자이다. 그런데 회사는 계약할 때 민규 씨를 '개인사업자', 즉 '사장'이라 해놓고는 문제가 생기면 노동법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간다.

[배달 라이더: 대사] 제가 사장이라고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잘 보셨나요? 양양씨와 민규씨는 '프리랜서'이지만 결코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맺고 있는 계약은 서로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뤄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계약은 결코 자유로운 계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규: 대사] 우리 모두 먹고 살기에만 에너지를 쏟기에도 벅차네요. 이걸 자유라 할 수 있을까요?

[양양: 대사] 우리의 노동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자유에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유는 자급자족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노동자에게는 그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고용 관계가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적 관계가 필수적인 자원이죠. 이런 관계를 위해서는 제도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국제인권법과 헌법,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와 기관, 정책 등이 자유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자유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입니다. 이 말은 개별적인 삶이나 프라이버시를 무시하자는 말이 결코 아니죠. 개인이 프라이버시를 누리려면, 그걸 존중해주는 타자와 사회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자유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사] 엘리콜레리 누구누구는 알리랑 뭐뭐했대요~

개인신상을 파헤치는 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없어요.
모두가 자기답게 살 수 있으려면 그 자기다움을 존중하는 사회가 필수적입니다.

[익명의 대사] ‘야, 이, 더럽고 재수없는 벌레 같은 @#X#(삐처리)’ 싹 다 사라져 버려! 아주 그냥 지켜워 죽겠어!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자기다움을 맘껏 드러내고 누릴 수 없어요. 무슨 폭력을 당하지는 않을까 늘 불안합니다.

[익명의 대사] ‘너희는 왜 화장실에 갈 때도 꼭 붙어 다니니?’
‘왜 엘리베이터에서 날 치한처럼 쳐다보는 거야?’

왜 그럴까요? 화장실을 비롯한 온갖 장소들에서 안전하다는 자유를 느낄 수 없으니까요.

[익명의 대사] ‘아파도 일해야지, 사람이 책임감이 없어. 민폐야 민폐!’

‘아프면 쉴 수 있는 자유’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익명의 대사] ‘왜 바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타고 난리야. 좀 한가할 때 돌아다니지.’

‘교통 약자들의 이동의 자유’는 존중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자유한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자유는 강자만의 특권이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렇게 누군가의 자유가 사라질수록 이 세계의 자유는 줄어듭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하고, 타자의 자유에 무관심할수록, 자유는 오히려 빈약해집니다.

자유 의미와 정도는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공공장소를 상상해 봅시다.

[대사] 내 몸은 내 거야. 마스크를 쓰건 말건 그건 내 자유지. 마스크를 쓰지 않을 내 자유는 절대적인 나의 주권이야.

이처럼 ‘내 자유가 절대적’이라는 주장은 자유가 ‘정당하게’ 제한될 수 있는 맥락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자유가 개인적이고 절대적이라는 오해는 때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면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한다’

이런 식의 태도는 사회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받아들이게 합니다.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란 정당한 조건에서 이뤄져야 의미가 있는데도 말이죠.

자발적인 노예, 자발적인 성매매, 자발적인 장기매매, 자발적인 대리모 등, 이런 사례에서 ‘정당한 조건’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대사] 자유롭다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지!

개인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태도는 유독 사회적 약자를 향한 다그침으로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에, 불평등으로 인해 취약한 처지에 몰린 사람들의 고통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시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그칠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여긴다면, 그건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한 대가는 아닐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자유는 자급자족이 아닙니다.

개인이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보장을 통해 한 사람이 이를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이 이를 수 있죠. 누군가의 자유를 위한 활동이 보편적인 자유의 확장을 가져온 사례를 함께 볼까요?

[활동가: 인터뷰] 나는 중증장애인이고, (고용 돼서) 돈을 버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몇 조를 번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알리: 어떻게 고용된 적 없이도 몇 조를 벌었다고 할 수 있나요?

[활동가: 인터뷰] 제가 이동권 투쟁을 벌인 덕분에, 서울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저상 버스도 생겨났어요. 그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 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시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을 제가 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아차나, 노인,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알리: 이렇게 우리는 자유를 통해 개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실현되는 자유의 가치를 향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자원을 통해 약자의 자유

가 실현될수록 세계는 풍요로워집니다.

서로가 손 내밀고 내민 손을 잡을 때, 관계 속에서 자유는 생성되고 성장합니다. 자유는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생산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평등 1편>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영상과 내레이션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원고대로 읽어 주시면 그에 맞춰 영상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내레이션: 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권 알리미’ 알리입니다. 존엄성, 자유에 이어서 오늘 공부할 개념은 바로 평등입니다.

[타이틀 시퀀스]

함께 그래프를 볼까요.

코로나 시대의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그래프에 숨어있는 알파벳을 한 번 찾아보시겠어요? 5초 드리겠습니다.

[내레이션: 알리] 정답은! 바로 알파벳 K자 모양입니다. 한쪽은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내려가고 있네요. 누구는 오히려 이익이 커지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계속 악화되는 현상이죠.

재난 시대의 불평등은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 때문에 새로 생긴 불평등이 아닙니다. 원래 불평등한 상태에 재난이 닥치니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

[대사: 인강 강사 패러디] “불평등? 불평등이 뭐야? 대단히 나쁜거지~”

[대사: 다른 사람] “노력하는 바가 다르니까 결과가 불평등한 건 당연하지. 불평등이 뭐가 나빠?”

[내레이션: 알리] 불평등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 불평등은 당연하다고 하는 사람, 음.. 그럼, 불평등이 왜 나쁜지를 생각해볼까요?

모두와 관계된 건강 문제를 예로 들어봅시다.

개개인이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으면 괜찮은 걸까요?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과 개인의 건강은 관계가 없을까요?

불평등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평등해야 건강하다>라는 책을 쓴 공공보건학자 리처드 월킨슨입니다.

[대사: 리처드 월킨슨]

위계적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낮은 위치를 강요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 불안정, 만성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건, 주변에서 자신의 기분이나 체면 등에 신경 쓰지 않고 기대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대접을 계속받게 되면 일에서의 즐거움과 성취감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폭력에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고로 저의 결론은 사회적 환경이 불평등하면 개인의 건강도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레이션: 알리] 위계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에서는 건강 불평등이 나타나는군요.

저는 “자전거타기 반응”이란 말이 떠오르네요.

자전거 타는 모습을 옆에서 봅시다.

바람의 저항을 막으려고 머리는 앞으로 숙이고, 속도를 내기 위해 발로는 설 새 없이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자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약자에게는 사정없이 발길질을 해대는 모습이 아닐까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손님이 웨이터에게 함부로 굴면, 웨이터는 주방장에게 화를 내고. 주방장은 조수에게 분을 풀고, 조수는 주방의 고양이를 발로 찬다’

한국 사회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자막: 강조] ‘슈퍼 갑’, ‘을의 눈물’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게끔 내몰릴까요?

[대사 1] 세상에 믿을 건 나 뿐이야. 나는 나만 챙기면 돼.

[대사 2]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 경쟁, 끝없는 경쟁이다!

[대사 3] 난 어차피 이기지 못해. 그냥 질러서 속풀이나 해보자. 내가.. 과시적인 소비를 한다면 어쩔셈이지? 이거라도 안 하면 난 어떻게 살라는거야~

[내레이션: 알리] 더 자기중심적인 행동과 태도,
사회적 지위를 둘러싼 경쟁 또 경쟁
손상된 자존심을 과시적이거나 분풀이식의 소비로 푸는 모습.

불평등한 사회에서 내몰리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불평등의 대가는 누가 치르나요?

우선, 개인이 불행하겠죠. 남의 눈치 보느라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고, '사람답다'는 감각이 훼손됩니다. 또한 사회도 타격을 받습니다.

[대사 1] 공적인 문제? 그건 정치인이나 알아서 하라고 해. 난 내 문제만으로도 골아파.

[대사 2] 어차피 나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접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뭣하러 이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

[대사 3] 협력과 연대는 개뿔...어차피 의사 결정은 자기들끼리 할 거면서...

[내레이션: 알리] 이런 상황일수록 이 사회는 강자들의 입맛대로 주무르기가 쉬워집니다. 그럼 또 불평등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차별받는 개인만 불평등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의 상실로써 사회 전체가 불평등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내레이션: 알리] 현실이 불평등할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평등을 상상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평등은 이상적이고 당위적이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평등에 대한 생각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등을 문제삼고 개혁할 수 있습니다.

[낭독: 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세계인권선언 제 1조)

[내레이션: 알리] 이처럼 평등은 대한민국과 인류의 공통적인 약속입니다.

[대사: 불만스러운 익명의 사람] 아, 그건 말 뿐이지요. 평등이란 터무니없는 공상이에요

요, 공상!

[내레이션: 알리] 과연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적힌 평등이 아무것도 아닌 공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명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넘쳐납니다.

2020년은 전태일 열사 사망 50주기를 맞은 해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의 청년 재단사였던 전태일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싸우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자기 몸을 불살랐습니다.

전태일의 주장과 요구는 헌법에 쓰인 평등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전태일의 생각을 삼단논법으로 정리해볼까요?

[내레이션: 노동자가 낭독하듯이] 대전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소전제: 노동자들은 인간답지 못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

정당한 임금, 적절한 휴식, 건강진단을 보장해 노동자의 인간다움을 보장하라.
하지만 공장주와 정부는 들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낸 근거들을 검증하기를 거부했다.

결론: 그들은 우리를 평등하게 대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에 적힌 평등을 위배하고 있다.

[내레이션: 알리] 50년이 지난 오늘날, 전태일의 요구는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반복되고 있을까요?

[내레이션: 노동자가 낭독하듯이] 대전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소전제: 노동자들은 인간답지 못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노동법에서 배제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하지만 기업주와 정부는 들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낸 근거들을 검증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결론: 그들은 우리를 평등한 시민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평등을 위배하고 있다.

[내레이션: 알리] 50년의 기간을 두고도 같은 요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데요.

노동자들의 요구는 불법적이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헌법에 적힌 평등’에 입각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막/강조] 대전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문장이 형식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헌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헌법상의 평등은 인간다움과 목숨을 건 주장의 전제이지요. 전태일과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그 평등을 입증하기 위해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에서 근본적 평등이 도출됩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대우하는 사회에서는 불평등을 문제삼고 개혁하려 할 것입니다. 평등의 이상은 현실의 불평등에 맞서는 싸움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내레이션: 알리] 자유와 마찬가지로 평등은 혼자 이룰 수 없는 가치입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평등이 만들어집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떠올려볼까요.

[동화 구연: 알리] ‘미운’ 오리는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따돌림과 구박을 당합니다. 슬퍼진 미운오리는 집을 떠나, 다양한 만남과 이별을 맞게 됩니다. 추운 겨울, 친절할 들쥐가 음식을 나눠주어 굶어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어요. 미운오리는 날개 부근이 간지러워서 날개를 퍼덕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날기 시작한 거예요. 미운오리는 백조였던 것입니다.

오리는 백조가 되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백조들의 ‘같이 놀자’는 말이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레이션: 알리]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을 연기하듯이 번갈아가며 읽는다]

[대사: A] 흔히들,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하잖아. ‘미운오리새끼’ 얘기는 그런 교훈을 주려는 걸 거야

[대사: B] 난 좀 이상한데. 우린 모두 다르잖아. 그게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애초에 당연한 차이가 왜 이유가 될 수 있지?

[대사: A] 미운 오리가 다르게 생겼을지라도 차별하지 말라, 그거잖아?

[대사: B] 그러니까 내 말은 왜 유독 '생긴 걸' 문제삼냐 말야? 다른 차이도 많은 데 말야.

[대사: A] 그냥 생김새가 우선 눈에 띄니까 그런 것 아닐까?

[대사: B] 그러니까, '다른 외모'를 문제 삼는 데, 다름의 기준이 누구냐고?

[대사: A] 오리!

[대사: B] 오리의 생김새가 왜 기준이 돼야하지? 오리를 기준으로 삼아 놓고, 기준으로 삼은 오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애초에 기준이 없으면, 모두 다르게 생겼을 뿐인데 말야.

[대사: B] ...???

[내레이션: 알리] 오리와 백조의 차이는 차별받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미운 오리'가 다른 오리와 다르게 생겼기에 '못 생겼다'고 말하는 기준이 문제입니다. '미운 오리'가 백조로 변신했다고 해서, 만약 오리를 무시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백조를 기준 삼아 오리를 열등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문제가 될 겁니다.

(강조) 차이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표준이자 기준으로 삼으려는 권력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합니다. '고유'하니까 차이를 갖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어떤 차이만 차별의 이유가 될까요?

(강조)그건 권력이 차별하고 싶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골라잡기 때문입니다.

가령 외모 권력은 특정 생김새를,

나이 권력은 특정 나이를,

재산 권력은 특정 소유를 골라잡아 차별합니다.

성차별 사회에서는 남성과 이성애가 권력이죠. 남성과 이성애 권력이 보기에 다른 성별과 다른 애정 관계, 다른 가족 형태를 차별합니다. 학력차별 사회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능력 중에서 유독 학력을 기준으로 줄 세웁니다.

권력은 자기와 다른 존재를 '차이'라고 지명합니다.

권력이 우열의 기준을 만듦으로써, 차이들을 줄 세우고 평가하는 데서 차별이 시작됩니다.

차별하려는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평등의 감각입니다.

<평등 2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권알리미', 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평등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평등'을 외치고 원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평등해야 하는지는 더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지요.

[타이틀 시퀀스]

예를 들어, 보통 평등을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분배에 한정지어 생각하지 않나요? 그것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거리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양양씨의 사례를 봅시다. 양양씨는 분명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여겨집니다.

왜 '보이지 않는 노동'일까요, 사회적 경력, 보험과 연결되지 않는 제도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양씨는 70대 중후반의 여성이고,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공장에 취업해 집안에 돈을 보태다가, 결혼과 육아를 거쳤습니다. 물론 내내 비정규적이고 불안정한 식당 일과 가사노동을 전전하며 가계를 책임졌죠. 남편의 병을 수발하다 사별을 겪고, 성장한 자녀와 다른 지역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일을 했지만 제도의 보호에서 벗어나 살았습니다. 양양씨의 의견을 묻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고 정치에도, 정당과 사회단체도 그녀와는 상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0대 여성 나나씨의 경우를 봅시다.

나나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식적인' 노동에 종사해왔습니다. 코로나 19 위기가 닥치면서 결국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사 후 육아를 택하게 되었지요. 직장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했지만 중요한 프로젝트와 승진은 남성 동기들에게만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과 성희롱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늘 팽팽한 긴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가정으로 다시 출근해야 했고, 남편은 '돕는

다'고 말하지만 가사와 돌봄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대사] “그래도 당신은 이제 일 그만뒀으니까, 폭 쉬어. 부럽다.”

[알리]

결국 위기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된 것은 나나씨인데도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나씨는 생각합니다.

[대사: 나나씨의 속마음] ‘나는 여전히 하루종일 종종거리며 일하고 있는데... 직장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은 일이고 가사와 육아노동은 일이 아닌가...’

[web발신] 김남편님 **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원 입금

이번에 신청한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인 남편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전에는 직장 생활이나 정치를 주제로 주변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는 했는데, 이젠 말을 나눌 마땅한 상대가 드뭅니다.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자리는 또 저만큼 멀어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애써서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는데 또다시 뒷걸음치는 기분이 듭니다.

[내레이션: 알리]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폐지 줍는 노인 같은 사례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고등 교육, 직장생활을 경험하고 겉으로는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도 분명한 불평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재분배 조치가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더라도, 기존의 가족 체계와 성별분업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성차별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강조자막] 그래서 물질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관계적 평등을 같이 문제 삼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중층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만이 아니라 이등 시민 또는 열외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는 정치적 불평등에 함께 노출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등을 이야기 할 때, 관계적 평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타이틀] 관계적 평등

[내레이션: 알리] 관계적 평등을 다른 말로 하면, 존중의 평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여성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등 약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면, '평등을 요구하면서 왜 특별 대우를 요구하느냐?'고 못마땅해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역차별', '특혜', 'OO인 게 벼슬' 등의 공격이 날아듭니다.

[내레이션: 알리] 하지만 약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특수한 지위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권리를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은 유독 도드라지게 취급되는 정체성을 이유로 평등한 시민이자 인간의 지위와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나씨의 경우처럼, 가정, 사회, 직장, 정치 등 다방면의 영역에서 여성의 인격과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제적 재분배와 맞물려야만 여성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존중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빵 한조각이 있습니다. 이 빵을 똑같은 크기로 나눠서 한 덩이씩 갖는 것이 평등일까요?

우리는 권리의 평등이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이뤄진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자른 이 빵을 사회적인 맥락에 놓아봅시다.

[대사: 선생님] “여러분! 오늘은 이 빵을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상황을 생각해볼 거예요. 나누어야 할 사람은 나, 친구, 찾아오는 사람 없이 혼자 사는 할머니, 신체 건강한 남자 청년, 혼자 거동하기 힘든 장애가 있는 여성. 이렇게 다섯 명입니다.”

[대사: 어린이] “할머니와 장애여성은 거동이 불편하니 빵을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두 덩이씩 드리고, 남자청년에게 하나, 친구와 저는 남은 빵을 나눠 먹을게요.”

[대사: 선생님] “상황을 더 추가해볼게요. 신체 건강한 남자 청년이지만, 실직 상태라 돈이 없어요. 할머니께선 혼자서는 슬퍼서 빵을 드시지 않으려해요. 또 장애여성은 활동지원사가 없이 혼자서는 빵을 먹을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사: 어린이] 그럼 청년에게 제 몫의 빵을 선물할래요. 아 그리고...(난처한 표정) 그

런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레이션: 알리]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놓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양을 배분하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등은 소규모 집단에서 먹거리를 나누는 수준과는 다릅니다. 사회, 경제, 정치적인 주체들이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복잡한 활동이죠. 기계적 균등 분배가 아닌 사회정의, 경제정의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뤄져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 장치 또는 보조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특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장치입니다.

최약자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분배의 최우선 목표로 두되, 경제적 분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최약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정치적 참여에 대한 존중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릅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사회적 관계와 연결된 자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네 꿈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각자의 대답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경험하며 사는지에 따라 원하는 바도 형성됩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각자가 이뤄낸 성과도 오로지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해냈다고 할 수 없죠.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이런 점에 골몰했습니다.

센이 어렸을 때 살던 곳은 심각한 기근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센은 굶주려 죽어가는 이웃들의 고통을 봤고, 성장한 후에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얻은 결론은,

[자막/내레이션]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나 돈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향에서 기근이 심화된 과정은 이랬습니다. 식량 부족이 이슈가 되고, 먹을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재기가 이어졌습니다.

사재기로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격 담합이 이어지면서 사재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 상황이 악화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중에 가진 돈으로는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논리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자막/내레이션] 기근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정치적 행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센은 필요한 것이 가까이 있는데도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의 역동을 설명했습니다. 빈곤을 설명할 때, 대부분은 어떤 자원이 부족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적인 실패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사회에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식이죠.

센은 그런 접근을 비판하며, 기회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지적했습니다.

[알리]

우리는 평등을 생각할 때, 흔히 물질적 자원만 균등 분배하거나 약자에게 물질적 재화를 좀 더 많이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센이 지적한 평등의 요소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막]

중요한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스스로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모두가 자유로운 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모두에게 자전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에게, 자력으로 걸기가 힘든 사람에게 그 자전거가 도움이 될까요?

이동을 위해 각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할까요?

[자막/내레이션] 바로 '역량'입니다.

[알리]

이동이라는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역량이고 곧 자유입니다. 역량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는 모두에게 같은 자전거를 배분하는 사회가 아니라

저상버스, 엘리베이터 등을 필수화하고 교통수단의 연결 고리마다 문제가 없도록 살피는 사회겠지요.

[자막] 평등은 단순한 물질의 분배, 기회의 균등이 아니라 역량 평등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원하는 좋은 삶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역량, 다른 말로는 자유의 역량입니다.

능력주의를 강조하면서 불평등의 결과를 겪는 약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
'시험'을 통한 공정성과 확실성을 마치 평등인 것처럼 여기는 것,
차이에 불과한 것을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덧칠하는 것,
차이 간의 위계를 만들고 특정한 차이를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의 평등한 역량 만들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관계적 평등, 역량의 평등을 거쳐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막]

경제·사회·문화·정치적 평등을 분리하지 말고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경제, 사회문화, 정치, 어떤 무대에든지 자유롭게 등장해 자기만의 공연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 사회문화적인 존재에 대한 인정, 정치적 목소리를 인정하고 참여를 복돋는 것, 이 모든 것이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알리]

약자이고 소수자라고 해서 이 권리들 중에서 뭔가가 빠진대도 괜찮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불평등입니다.

<연대 1편>

[내레이션: 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권 알리미 알리입니다.
존엄성, 자유, 평등에 이어 오늘은 연대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타이틀 영상]

[대사: 시민1] “연대? 연대가 뭐야?”

[대사: 시민2] “그거 대학교 이름 아냐?”

[대사: 시민3] “이봐, 지금 인권 얘기 중인데 대학교 이름이 왜 나오겠어?”

[대사: 시민4] “아니지, 단결~투쟁!, 연대~투쟁!~ 이거 아냐? 광장에 모여서 띠 두르고 시위 하는 거.”

[알리]

[내레이션] 연대라는 단어는 엉뚱한 의미, 혹은 집회와 시위의 이미지로만 좁게 이해
되곤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연대란 무엇일까요?

우선,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란 존재 자체가 온갖 만물의 상호 의존과 활동의 결과입니다.

곧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대의 산물입니다.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내가 아플 때, 다치거나, 일할 수 없을 때,

혹은 아동일 때나 노인일 때도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유대와 협력 덕분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이순간에도 설 새없이 연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연대의 산물이랍니다.

[알리]

대표적인 연대가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고 있는 노동이에요.

저마다 노동을 통해 타자의 삶에 기여하고 있어요.

또 그런 기여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여와 연대를 무시하려는 세력이 있지요.
제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성공했다고 자만하며
누군가를 상호의존성에서 배제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막/내레이션] 그런 세력에 맞서는 힘이 연대입니다.

[알리]

노동의 결실을 사회적으로 골고루 나누는 것은 대표적인 연대입니다. 그런데, 노동의 결실을 독점하거나, 모두가 향유할 수 없도록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힘에 맞서서 사회를 바로잡는 노력이 연대입니다.

[자막/내레이션] 연대는 한마디로 인권의 동력입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낳는 힘,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또 동력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유지하고 밀고 나가는 힘입니다.
즉, 자유와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인권을 탄생시킨 동력이 연대이지요.
또 그렇게 탄생한 인권을 유지하고 밀고 나가는 힘도 연대입니다.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법, 헌법 등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서와 제도에는 인권에 관련한 조항들이 빼곡이 담겨 있습니다.

[대사1] 뭐야? 인권이 이렇게 많이 적혀있는데 아무 쓸모 없잖아?

[대사2] 왜 똑같은 인권인데 어떤 사회에선 잘 보장되고 어떤 사회에선 무시되는 것 일까?

[대사3] 우리 사회에는 뭐가 부족하길래 이런 필수적인 권리가 무시되는 거야?

[알리] 답은 연대의 결핍이에요.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어야 자유와 평등이 구체적인 법제도와 정책으로 사회 속에 등장해요.

또 계속 연대의 노를 젓는 시민들이 있어야 그런 제도가 에너지를 얻어 유지되고 사회라는 배를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편리한 기기들이 동력이 없이는 무용지물인 것처럼 인간다운 사회에 꼭 필요한 동력이 연대입니다.

즉, 연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라는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연대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대사 1] 불쌍하잖아요. 도와줍시다.

[대사2] 안됐어서 도와줬더니, 그게 자기의 권리라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 다니까. 뻔뻔하구만. 다신 도와주지 말아야지.

[대사3] 도울 가치가 있는 사람만 골라서 도와시다.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그저 선의로 도와준다거나 베풀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연대는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대사 1] 나는 구제와 자선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합니다.

[대사 2] 나를 가련하고 불쌍한 자로 만들지 마세요. 나도 당신과 동등한 사람이고 시민입니다.

[대사 3] 나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기에 모든 사회와 국가는 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알리]

자선, 구제, 후견... 이런 말들은 연대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연대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타자를 열등하거나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면서 베푸는 것과

타자를 권리의 주인으로 보고 그의 당연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리]

공화국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주공화국은 그 구성원간의 동등함과 평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연대는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들이 맺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구성원들이 서로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며 평등하게 맺는 관계이지요.

그렇다면,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관계맺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자격이 필요할까요?

[어린이 대사] 저는 약하고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제게 주는 대로 먹고 입어야 해요. 어른들의 기분에 따라 야단맞고 때론 학대받아요. 저는 연대의 관계에서 예외인 거죠?

[노인 대사] 나는 내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들어요. 혼자서 화장실 가기도 어렵고요. 사람들이 날 어찌 대우하든 나는 항의하거나 맞설 힘이 없어요. 저는 연대의 관계에서 배제된 거죠?

[알리]

아니, 절대 아닙니다. 취약성과 의존성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타자와 사회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의존의 정도와 의존의 내용이 다를 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그런 상호연결성을 무시하고, 누구는 연결성에서 일부러 배제됩니다. 그런 무시와 배제에 맞서는 힘이 연대입니다.

[알리]

연대는 특히 취약한 사람을 위해 더욱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람이라면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명령이 연대입니다.

다양한 차이를 지닌 존재 모두가 서로의 취약성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연대적인 사회입니다. 연대는 개인의 노력과 성취의 결과가 아닙니다.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처럼 사회적인 산물, 모두의 공통 자산입니다.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있으면, 누구도 취약해지지 않고 동등한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만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대사1] 의무가 먼저다.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가 웬말이야?

[대사2] 돈도 벌지 않았으면서

[대사3] 국방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대사4] 우리 나라 사람도 아니면서

[대사5]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면서

[알리]

과연 의무를 먼저 수행해야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특정한 자격과 요건을 요구하는 권리들이 물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갖춰야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업 같은 것들이죠.

반면 인권은 그런 자격과 능력을 따지지 않는 권리입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인간사회가 이룬 유무형의 공통산물을 향유하며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산물이 불평등하게 쏠리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책임을 수행해야 인권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자막/내레이션]인권에 따른 책임이란 바로 이 연대의 책임을 말합니다. 인권과 연대는 한 쌍을 이룹니다.

[알리]

또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능력이나 자격이 인권의 전제조건이 아니듯이 연대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저마다의 차이를 존중받으며 연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귀한 일 천한 일, 남자만 하는 일 여자만 하는 일, 돈 받으면 가치 있고, 무보수면 가치 없는 일. 이런 구별에 맞서 연대 해야합니다
세상의 모든 노동은, 타자와 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우린 서로 다른 적성과 소질로써 타자와 사회에 기여 합니다

[알리]

그런 노동을 위아래로, 돈의 가치로만 따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똑같아서가 아니라 서로 다르게 자기답게 살면서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런 삶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와 성격은 달라도 노동자를 괴롭히고 위험하게 만드는 환경에 같이 맞설 수 있습니다.

[알리/ 혹은 자막] 각 사람이 고유한 존재이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에는 고유한 성적 존재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남자야? 여자야? 남자다워야지, 여자다워야지. 남자답지 못하게, 여자답지 못하게.
사랑? 그것도 때가 있는 거지. 얼레리 꼴레리. 그것도 사랑이야?
누가 너 같은 걸 좋아하겠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알리]

각 사람은 고유한 성적 존재로서 성차별에 대해 저항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성활동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성차별에 대해서는 같이 맞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대는 똑같은 존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이를 지닌, 다른 말로 하면, 고유성을 지닌 존재들끼리의 만남입니다.

서로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에서 만들어가는 연대가 인권을 실현하는 동력임을 잊지 마세요

<연대 2편>

[내레이션: 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권 알리미 알리입니다.
오늘은 연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려 해요.

[타이틀 영상]

우리 사회에는 억압과 지배, 그에 따른 침묵이 가득합니다.
억압과 지배를 갈등으로, 억눌린 침묵을 질문을 주고 받는 대등한 관계로 바꾸는 것이 연대입니다.

[내레이션: 알리]

연대는 그저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갈등하는 것’이 연대입니다. 억압하고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문제를 놓고 다룰 수 있는 동등한 관계로 전환시키는 힘이 연대입니다.

여기 걸으려는 화목하고 평화로운 집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대사: 노동자] 먹고 살려고 비위 맞추는거죠. 살아남으려면 그저 주는 대로 받고, 군소리 없이 납작 엎드려야 해요.

[자막/내레이션]

동등한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는 갈등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다루며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알리]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적대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의 동질성을 찾고, 인간성에 대한 존중 속에서 그럭저럭 지낼 만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네덜란드의 정치학자 힌스테런은 저서 <시민권 이론>에서 그것을 “갈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시민들의 광합성”이라 말했습니다.

[자막/내레이션] 가짜 연대

[대사: 익명1] ‘우리 학교 출신 아니잖아, 어떻게 이 자리에 다른 학교 출신이 올 수 있어?’

[대사: 익명2] ‘아이고, 고향이 같네. 앞으로 나에게 형님이라 불러. 아우를 잘 보살펴 줄테니’

[내레이션: 알리]

‘우리끼리’를 챙기면서 남들에게는 무자비한 모습은 역사에서나 여러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민족이야.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 민족끼리 살아야지’

‘우리 인종이야말로 가장 우수하고 깨끗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

‘살 가치가 없는 존재를 돌보는 것은 돈 낭비야. 그 자원을 회수해서 쓸모 있는데 쓰면 좀 좋아?’

[내레이션: 알리]

나치가 주장했던 인종주의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성별, 인종, 혈연, 지연 등의 차이를 절대화하기.

위계적 질서 옹호하기.

지도자에 대한 복종을 중요시하기.

악성 댓글 달기, 온라인/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괴롭힘,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와 정책에 폭력적으로 반응하여 중단하게 만드는 일, 소수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움츠리게 만드는 일…

[알리]

이런 것이 현대판 나치의 행동방식입니다.

이런 일을 좋아하는 것은 연대가 아니라 ‘패거리 주의’이고 가짜 연대입니다.

[대사: 동성애 결사반대 톤으로] ‘OO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레이션: 알리]

OO에는 누가 속할까요? 오늘날 우리 삶 한복판에서 OO을 제거하거나 배제하자는 주장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표적이 된 차례가 OO이었지만, 내가 OO에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자막/내레이션] 가짜 연대는 동일성을 강조합니다.

[알리]

가짜 연대에서 강조하는 동일성은 약자와 구별지어 자신들의 특권을 주장하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가령 ‘나는 남자야’, ‘나는 백인이야’, ‘나는 OO의 국민이야’ 같은 주장입니다.

가짜 연대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구별을 좋아합니다. 우월한 피, 우월한 인종, 우월한 민족, 우월한 성별이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짜 연대는 민주주의를 싫어합니다. 가짜 연대는 지도자를 숭상하며 지도자를 정점으로 형성된 수직적 관계에서의 절대적 복종을 즐깁니다.

가짜 연대는 타자에 대한 멸시와 배제를 선동합니다. 타자를 멸시하고 밀어내는 말과 행동을 세계 할수록 자기 집단 내에서 자기 위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멸시와 폭력적인 행위를 즐깁니다.

[알리]

이런 동일성의 집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인권에서의 연대와 동등하게 취급될 수는 없습니다. 타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결합은 겉보기에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연대가 아닙니다.

인권을 위해 연대한 역사적 사례를 살펴봅시다.

[대사: 나치에 맞서 저항한 독일의 솔스 남매] 같이 싸웁시다!

나치에 맞서 저항한 독일의 솔스 남매는 각각 고등학생과 대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히틀러를 대학살자로 묘사한 소책자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히틀러를 반대했고, 동료 시민들에게 이에 동참하라고 권했습니다. 나치 친위대에서 일하기를 거부하거나 유대인을 숨겨주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요구되는 일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양심을 지키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알리]

반면 솔스 남매는 개인적인 도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료 시민들에게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행동했기에 연대라는 이름이 어울립니다.

연대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노동 착취 공장에서 생산된 옷을 소비하지 말자는 운동이 벌어져 왔습니다. 개인적인 불매가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대량으로 유니폼을 구매하거나 대학처럼 로고가 새겨진 의류를 구입하는 기관들은 형편없는 노동조건에서 만들어진 옷의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알리]

한국에서도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하청대리점을 착취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거부운동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제품을 팔려면, 그것이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조건에서 생산됐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소개하고 싶은 연대활동이 있습니다

2019년 3월 전세계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과 함께 결석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기후행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기후 헌법소원을 아시아 최초로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한 청소년 활동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 청소년] “2050년, 내가 엄마의 나이가 되는 나를 상상해봐요. 노인이 된 엄마를 나는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차마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폭염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내가 되거나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만들었어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기후 행동에 나서게 됐어요.”

[내레이션: 알리]

연대는 동료 시민들에게 함께 사회를 만들고 지키자고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초대장을 받은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명한 인권교육가 파울로 프레이리는 『연대의 페다고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독]“냉소를 개인의 힘으로 넘어서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은 개인의 냉소를 환영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분열되고 고립될수록, 그리고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속명론에 빠져들수록 ‘지배’는 더 수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냉소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고립된 개인이 벽을 허물고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의 힘, 즉 연대의 힘은 ‘덜 추악한 사회, 거짓없이 웃을 수 있는 사회, 아는 것이 그저 바라만 보는 일에 그치지 않는 사회, 언어와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 즉 인간화된 세계로 향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대에는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담깁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증거이자 그를 위한 실천이 바로 연대입니다.